“열암곡 마애부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11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





조계종은 11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인근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인근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 일환으로 ‘한국불교를 일으켜 굳건한 반석위에 올린다’는 의미를 담아 2019년부터 시작한 불사다.

기원법회는 1부 헌향과 헌등, 헌다, 예경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과보고 및 법어,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는 마애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직접 부처님을 친견하고 헌향하며 마애불 부처님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원법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애불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한국불교의 중흥의 상징이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한국불교를 세워 올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경주시가 2007년 5월 열암곡 석불좌상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석불좌상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바닥을 향해 넘어진 상태였으며 바닥과 불과 5cm 간격으로 형태를 유지 하고 있어 ‘5cm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열암곡 마애불은 전체 높이 5.6m(불상 4.6, 연화대 1.0m)인 대형 불상이며 문화재청은 조사를 통해 진도 7규모의 대지진과 홍수로 넘어졌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11월 21일 제33회 수계법회

수계 293명, 연비 5175명 등 총 5468명 발원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오른쪽)이 어린이불자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21일 안양본원서 제33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새롭게 수계를 받은 인원은 293명으로, 연비 5175명 등 총 5468명이 불자로서 다시 발원했다. 수계는 안양본원서, 연비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국내외 25개 각 지원에서 진행됐다.

수계법회는 예불을 시작으로 삼보를 찬탄하며 수계를 고하는 ‘거향찬’, 삼보를 청하는 ‘청성’, 청법삼배, 청법가, 입정, 대행 스님 영상법문, 수계사를 청하는 ‘청사’, 오계 설법, 연비, 수계자 발원, 수계첩 수여, 이사장 혜수 스님 말씀, 일체제불의 마음 합송,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우바새들은 ‘본연 자(自)’, 우바이들은 ‘참나 아(我)’라는 법명을 받았다. 연비의식 후에는 진주지원 아함 이희영 불자의 발원문 낭독과 광명선원 자벽 이상배 거사의 수계첩 대표수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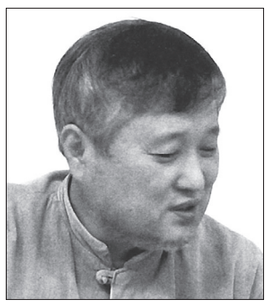
수계법회에는 위드코로나를 맞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한마음선원을 방문하지 못한 불자들이 대거 찾았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 처음 수계 받으신 분들은 큰 스님 법문 내용대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나와 남을 위한 자비 실천행을 생활속에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3회 수계법회는 안양본원과 전국 지원에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됐다. 노덕현 기자

5.18 광주 항쟁 주역 스님의 쓸쓸한 죽음

전두환사망 당일 11월23일 5.18 항쟁 주역 진각 스님 저수지서 자살로 生 마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 씨가 11월 23일 사망했다. 전 씨의 사망 당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된 한 시민이 저수지에 몸을 던져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이름은 이광영(68, 사진) 씨.

유서에는 “계속 아팠는데 요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는 내용이 쓰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4시간마다 통증을 이기기 위한 진통제 주사를 맞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본래 이 씨는 스님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각 스님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다.

당시 나주 다보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진각 스님은 도반인 성연 스님이 준비하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 증심사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스님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약국과 개인병원에 약품을 조달하고 시내 병원에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보급했으며,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그러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려다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진각 스님을 계엄군은 ‘폭도’로 분류해 1981년 1월 강제 퇴원시켰다.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속퇴해 결혼을 하고 속인 이광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스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신불수의 고통과 경찰의 탄압에도 진각 스님은 1982년 8월 5.18부상자회 결성에 참여하고 총무를 맡아 5.18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보상,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전 씨가 사망한 날, 사문으로 민중과 함께 하다가 총상으로 평생을 후유증으로 살았던 진각 스님 이광영 씨도 삶을 달리했다. 그의 죽음은 아픈 우리 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더욱 쓸쓸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나눔, 노래·춤으로 희망 전달

11월 19일 광진나루아트센터서 마하무용단 다양한 주제로 공연 배수지 씨, 생명나눔 대상 수상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19일 서울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나눔, 기적을 만들다’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도후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을 올렸다.〈사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중증 질환으로 동국대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소정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에 이어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생명나눔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구현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제2회 생명나눔 대상은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씨가 선정됐다. 나눔상에는 도후 스님, 홍보상에는 BBS불교방송 ‘거룩한만남’, 생명상에는 주석 스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나눔은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축복”이라며 “가슴속 벅찬 감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미얀마 코로나 극복에 보탬이 되길”

국제불교연합, 11월 25일 미얀마에 마스크 전달



국제불교연합은 11월 25일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서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제불교연합(공동이사장 재원·법일)은 11월 25일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에서 미얀마 고아원과 초등학교, 불교대학 등에 사용되는 어린이와 성인용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5000만 원 상당의 ‘싱그라미’ kf94형과 어린이용 마스크로 불자기업인 에스제이파워, 대성울트라소닉, THL네트웍스, 참이누리 등이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국제불교연합 공동이사장 법일 스님을 비롯해 국제불교연합 NGO대표 현오 스님, 홍을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 등 국제불교연합 관계자들과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대표, 정상진 THL네트웍스 대표, 방기상 등불 대표,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등 기업·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미얀마 무관부 측에서는 딴 타익 주한미얀마무관(육군 준장)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